

자비 실천하는 ‘자장면 스님’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 사단법인 ‘사랑 실은 스님 짜장’ 설립

“누구나 원하는 곳이면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성심껏 자장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면 스님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사진)이 자장면을 통한 본격적인 전법활동에 나섰다. 운천 스님은 최근 ‘사단법인 사랑 실은 스님 짜장’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스님은 그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선원사에 무료급식을 진행해온 것을 시작으로 범어사, 쌍계사 등의 사찰을 찾아 자장면 대중공양을 해왔다.

또한 인근 지역 입실 탄약창, 35사단, 육군 부사관 학교 등 군부대 장병들뿐만 아니라 서원복지관, 요양원, 노인정, 장애인 관련 기관 등 복지시설도 방문해 자장면을 제공해 왔다. 그러던 중 자장면 대중공양의 반응이 좋고, 전법 효과가 뛰어나자 사단법인 출범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장비를 운송할 대형 버스까지 구입하는 등 봉사활동 체계를 마쳤다.

또한 봉사활동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는 돼지감자차도 점차 효음이 좋아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 규모를 늘려 남원 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약

2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캄보디아 등에 우물 50개를 파기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자장면을 대접해드린 분들의

숫자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더 확대되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운천 스님은 선원사를 자원봉사 전문 템플스테이 도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보였다.

또한 3박 4일 일정으로 봉사에 직접 참가하는 체협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선원사는 물론 모든 후원금의 재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정공개로 통해 후원자들이 후원금의 집행내역을 알게 되면서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선원사에 누구나 편히 쉬 수 있는 무인 찻집을 만들고 돼지감자차도 향후 영농 법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런 모든 활동 뒤에는 선원사 신도,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건강도 돌보고 어려운 이웃도 간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선원사 돼지감자 차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경북전법단 출범



조계종 대구경북 전법단이 4월 27일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역의 포교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에 들어간다.

조계종 전법단 산하 지역 조직으로 3번째 결성된 대구경북 전법단은 이날 파계사 주지 범광 스님 등 11명을 자문법사로, 문수포교도량 효신 스님 등 38명을 지도법사로 각각 위촉했다.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병원, 호스피스, 군, 경찰, 교정 등으로 포교분야를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혜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45년간 전법에 나선 것은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뜻이다. 포교는 곧 세상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남 장성에 혜암 스님 기념 광장 조성

제10대 종정 역임... 혜암문도회 공원부지 기증식

혜암문도회(회장 성범스님)와 유발상좌들은 4월 24일 전남 장성군 덕산마을 입구에 혜암 광장 조성을 위한 공원부지 기증식과 생가마을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증된 토지는 혜암문도회와 유발상좌, 원당암 신도들이 3000여만을 들여 장성을 덕진리 683-3번지 일대 300여 평을 사서 마을주민들의 품에 전달했다.

혜암 스님의 탄생 92주기를 맞아 마련된 혜암 광장은 스님께서 태어난 마을 입구에 마을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정자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릴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전북불교합창제, 전북어린이 큰 잔치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전북지역의 봉축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제11회 전북불교합창제는 전북불교위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불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예술회관에서 4월 27일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합창제에는 무주 향산사 부루나 합창단과 전북불교발전협의회 남성중창단이 새로 참여했다.

또한 23일에는 전북 덕진 공원에서

2000여명의 어린이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어린이 큰 잔치가 열렸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시 개신교계, 연등 설치 중단 요구

‘종교자유 침해’ 주장하며 전주시청 항의 방문

전주시 기독교 교계가 부처님 오신날 가로연등설치가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청에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정덕만 목사), 전북인권선교협의회(회장 김진열 목사), 전주시장로연합회(회장 김남기 장로), 전주시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오성태 목사) 등의 개신교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연등설치중단과 종교자유 침해 △모든 가로수에 시설물설치로 인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중단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에 역행하는 특정종교의 포교와 의식화 중단 △연등설치를 사찰 경내와 주변에 국한해 설치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충분히 사찰 안이나 사찰 건물에 자신들의 종교 상징물을 달아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다. 그러나 전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수많은 연등 무단설치로 거리를 수놓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아니다. 특정 종교 단체의 특정 상징물과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는 다른 이의 종교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며, 나아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전주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전북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 관계자는 “전주시청에 합법적인 연등설치 허가를 받고 일부도로에만 설치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향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팀장은 “개별대응보다는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조계종 봉축위원회 팀장은 “수백년간 이어진 문화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지역의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해에도 부활절 현수막을 전주시에서 불법광고물로 규정 철거하자 시정을 방문해 항의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륜사, 일본지진 희생자 49재 봉행

태고종 종정 혜중 스님 참석... 희생자 위로



시작으로 대령, 관옥의식, 살풀이(한 보리심) 신중작법, 혜초큰스님 법어, 상단권공, 시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산작법무를 시연한 법륜범음불교대학 학인 스님들은 그동안 학과수업을 통해 배운 과정을 처음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혜초큰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상은 욕도의 세상이다. 깨달지 못하면 욕도의 수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번 49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불법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비록 이웃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연기의 진리로 보면 우리 부모형제와 다름없다”

일본제양으로 인해 생을 달리던 영가들을 위한 49재가 봉행됐다.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태고종 종정 혜초큰스님을 모시고, 지난 3월 일본지진 희생자 영가들을 위한 49재를 4월 28일 봉행했다. 49재에는 혜초 스님,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전통불교연합회(회장 해령) 회원, 법륜범음불교대학(학장 월인) 학인 스님 30여명을 비롯해 150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영가를 맞이하는 시연을

행사를 개최한 월인 스님은 “비록 이웃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연기의 진리로 보면 우리 부모형제와 다름없다. 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의 49재를 맞아, 영가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불교의식교육기관인 법륜범음불교대학은 오는 10월 재학생들의 작품시연회와 11월 졸업시연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세알레이 디팡카라 초청
사마타 위빠짜나 수행

· 1964년 미얀마 출생.
 · 어린 시절부터 수행에 전념하여 여러 큰 스님 들로부터 명상지도를 받음.
 · 대학 시절 파이옥 샤야도계 가르침을 받아 깊은삼매를 이룸.
 · 1990년부터 청정도론, 호흡관, 지비관, 부정관, 4대 요소 등에 대해 수행 지도함.
 · 미국, 캐나다, 타이완, 영국, 홍콩 등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수행지도 중.

● 장 소 : 남양주시 봉인사 031)574-5585
 www.bonginsa.net

● 일 시 : 2011년 6월 30일 ~
 2011년 7월 9일 (9박 10일)

● 동참금 : 22만원 (1박/2만원) 스님 10만원
 입금 계좌: (예금주 봉인사) 동협 355-0000-5973-03

● 준비물 : 개인세면 도구

※ 원하는 기간만큼 수행할 수 있으며
 오후 불식(간단한 주스, 음료 제공)입니다.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입니다,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울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해보실 수 있도록 지도하여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무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업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순일 금강경 교실

부처님께서 금강경, 반야심경 및 초기불교경전을 통해 전해 주시고 하셨던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를 한역본과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비교 분석하여 쉽고 상세하게 풀어 펼쳐주시는 순일 스님의 **깨달음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포교당 4월 23일 오전 11시 개강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1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더샵 스타파크 A-309

부산순일선원 5월 6일 저녁 8시 개강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9시 30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7-2 2층
 문의 070-4129-4127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강료 5만원(산스크리트어 교재비포함)을 농협:351-0184-5321-83(순일선원)으로 입금하신 후 070-7779-77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oonil.org]를 참조하세요!

순일선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성리 166-3 T. 070-7779-7711